◇강원산업불자회는 쇳물처럼 열성적으로, 강철처럼 굳센 의지로 직장 불교를 일궈내고 있다. 하루 3교대 근무로 몸은 피곤하지만 매월 두번의 정기법회를 통해 심신을 정화하면서 보살행도 두텁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창립법회 장면.

"삭막한 직장 즐겁게" 자비향 피워

탐방 강원산업불자회

강철불심 100여명 산고끝 올 4월 창립
백혈병 동료자녀 살리기 앞장도

철근 철도레일등을 생산, 철강산업의 역군으로 인정받는 강원산업(포항시 송내동 444)이 지난 4월 오랜 산고 끝에 불자회를 탄생시켰다.

강원산업불자회(회장 고형규·47)가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친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강철만큼 단단하고 변함없는 모임을 제련해내겠다는 의도다. 3월8일부터 1박2일간 비학산 법광사에서 성공적인 창립을 다짐하는 철야정진법회도 가졌다.

현재 회원수는 1백여명. 전직원 2천5백여명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지만 잠재력은 무궁하다. 철강이 주는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슬로건은 '밝은직장 향기로운 사회'로 정했다.

강원산업의 근로자들은 하루3교대 24시간 상주근무를 한다. 용광로의 불씨가 꺼져서는 안되기 때문. 따라서 회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기란 하늘의 별따기지만 의욕은 용광로의 쇳물만큼 뜨겁기만 하다.

회원들은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오어사(주지 하나)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동·하기수련대회와 성지순례를 갖는다. 초창기에는 오어사외에 죽림사 운용사 법광사 등으로 옮겨다니며 법회를 가졌으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은 오어사에서만 한다. 이를 위해 회원 모두 오어사 신도로 등록하는 열성을 보였다.

지난 6월에는 가족법회를 성공적으로 봉행했고 8월에는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직장동료의 자녀인 현정양(24) 돕기에 앞장섰다. 진흙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산업사회의 삭막한 굴레속에서도 선행을 통해 훈훈한 불향(佛香)을 피우고 있는것.

회원들의 당면과제는 사내에 동아리방을 갖는 것이다. 산업현장 가까이에 도량을 마련함으로써 불교의 생활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강회장은 "포항직장불교협의회의 결성을 구상중"이라며 "본회를 중량감있는 모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포항=이윤호 기자

우리 모임에선

서울대병원 수계법회

서울대병원직원불자회(회장 조보연, 지도법사 은진스님)는 18일 오후2시 본원 지하 A강당에서 전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스님을 수계법사로 창립 10주년 기념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지난 9월1일부터 1천배 기도와 교리시험을 거치며 신심을 쌓아온 회원 115여명과 환자 2백여명이 이날 보살5계를 받고 거듭나게 된다. (02)760-3176

하이텔 철연회 전국모임

하이텔불교동호회내 장애법우와 봉사자들의 모인인 철연회(회장 이승덕, 지도법사 정진스님)는 11, 12일 신탄진 보현불교대학 수련장에서 후반기 전국모임을 가졌다. 100여명의 회원들은 레크리에이션 촛불관음탑돌이, 캠프화이어 등의 행사를 통해 우정과 불심을 다졌다. (02)498-8887

소쩍새마을 경로잔치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스님)은 3일 지역노인 1백여명을 초청하여 제2회 소쩍새마을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사진〉

박성옥 무용단의 부채춤 검무 소고춤 등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의 공연과 할아버지·할머니 한마당행사로 펼쳐진 이날 행사는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권기록교수와 서울 고려치과의원 김성문원장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맑고 향기…' 환경캠페인

맑고향기룹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19일 서울 관악산 계곡에서 쓰레기를 모으는등 전국적으로 환경캠페인을 벌인다.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은 12일 낙동강연등제에서 행사장 정리 봉사를, 19일 금정산에서 환경캠페인을 펼친다. 경남모임(본부장 전말선)은 8~14일까지 전국체전이 열린 창원공설운동장 주변을 청소했다. (02)741-4696

봉은불교대 총동문 수련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스님) 불교대학총동문회는 25, 26일 1박2일간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일암 일대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25일 9시 봉은사서 출발. (02)547-7831

제주대불련 집체극 공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주지부(지부장 김보탐)는 창립 34주년을 맞아 3일 제주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집체극 '마음을·세상을·자연을-맑고 향기롭게'를 선보였다. '마음을…'은 각박한 사회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경시와 환경오염에 대해 여러 각도로 조명한 것.

수원불교학생회 환경정화

수원지역 불교학생회 지도자연합회(회장 허인선)는 26일 수원지역 초·중·고 불교학생회 청소년불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성곽순례 및 환경정화활동을 갖는다. (0331) 252-9560

◇7일 명성여고 학부모들이 이원주교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칭찬으로 자녀의 꿈 키워줘야"

명성여고 수심회 첫 불교강의 수업

"여러분은 미래의 부처를 낳고 기르는 보살이예요. 언제나 자녀들에게 칭찬으로 꿈을 키워주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가정교사가 되어 주세요."

7일 오전 종립동국학원 명성여고(교장 이원주) 교정의 수실당. 불교어머니회 수심회(총회장 김옥산) 회원들과 학부모 50여명은 교법사 출신인 이원주교장의 '불교의 교육관'을 주제로 한 강의를 교육생 입장에서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날 강의는 명성여교가 '열린교육'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개설한 '불교교리 강좌'(총 8회)의 첫 강좌. 가정과 학교에서의 자녀교육을 예화와 비유를 통해 불교적으로 재미있게 설명하다보니 연신 웃음이 끊어지지 않을만큼 반응이 좋았다.

강좌는 12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에 계속 열린다. (02)452-8655

"기도는 자기성찰 기회"

광명선원 천일기도 회향

"기도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천일기도 정진중 순간순간의 유혹이 뒤따랐지만 부처님의 가피로 오늘 회향할 수 있게돼 기쁩니다."

5일 천일기도 회향법회(사진)를 봉행한 초격스님(광명선원 주지)

은 천일기도 회향의 감회를 이렇게 말했다. 이어 월운스님은 "천일기도 회향을 시금석으로 정진수행에 더욱더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선사조실 운경스님을 비롯 봉선사주지 밀운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산악인련 수행도량 낙성

3일 안동 약산 흥은사에서 열린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 지정수행도량 낙성대법회 및 발대식에는 불자산악인 3천5백여명이 참석, '청정 불국토 건설'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월주, 태고종총무원장 인곡, 동국대정각원장 법산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이사장, 부산의국어대 박봉식총장 등 동회 고문단(법산스님은 제외)과 창건주 손현수회장, 부회장단 등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은해사 훈할머니 환영법회

캄보디아 일본군 위안부 훈할머니 환영법회가 4일 오전 대구 은해사에서 열렸다.

경산 개인택시 불자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은해사에 도착한 훈할머니는 "그립던 조국에서 부처님께 의지하며 남은 생을 살고싶다"고 인사했다.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문제가 반드시 이뤄지길 서원한다"며 "훈할머니가 고국의 품에서 가족과 못다한 정을 나눌수 있도록 돕겠다"고 법문했다. 〈윤〉

월주스님 화갑기념 문집 봉정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 화갑기념 문집과 논문집 봉정식이 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석주·탄성·녹원·지관·설정스님과 각 종단 스님을 비롯 각계인사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관스님·고건총리·고은시인의 축사, 도영 금산사주지와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의 논문집봉정의 순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조계종 제도개혁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7면〉

생명나눔실천회 장기기증자 천도재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사후육신을 공양한 장기기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천도재를 8일 예산 수덕사에서 개최했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천도재는 94년 각막과 시신을 기증한 故김치언씨에서부터 96년 각막을 기증한 수견스님, 97년 7월 각막을 기증한 故이유기보살까지 13위의 장기기증자 영가를 천도했다.

한국불교硏-美 UCLA 자매결연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8일 미국 UCLA대학 부설 한국학연구소(소장 로버트 버스웰)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한국불교硏과 한국학硏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불교전적 영역 △불교문화 소개 △국제학술세미나 등의 공동 작업을 통해 양국 학술교류의 창을 확대할 방침이다. UCLA 한국학연구소는 보조국사 지눌스님, 원효스님 등의 전적을 주로 연구·번역하는 학술단체.

경불련 불교시민대학 개강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설조스님) 제1회 불교시민대학 개강법회가 7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개강법회에서 설조스님은 "지혜는 여유를 만들고 여유는 바른 힘을 낳게 되며 힘은 나와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며 "살아있는 불교, 함께사는 세상을 여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 명 서

해인총림의 청정가풍 회복과 교육도량 정립을 위하여

해인총림은 총림개설 이후 여러 문중에 의해 운영되어온 원융화합의 도량이다. 원융화합의 정신이 퇴색할 때는 산중의 원로스님들과 대중의 요청으로 시정되었으니 원융산림의 구현은 해인총림의 특징이요 장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융산림의 정신을 바탕으로 총림개설 이후 해인사는 문중사찰, 지역을 뛰어넘는 종단 최대 최고의 수행 교육도량으로 자리잡으면서 명실공히 한국불교의 얼굴이 되었다.

해인총림은 지난해(1996년) 사중운영에 있어 화합과 원융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엄청난 내홍을 겪은 뒤 원융화합을 기약하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출범하였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사중 운영자들은 수행풍토의 진작과 승가교육의 진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흥하지 아니하고 가람불사를 빙자한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등 총림운영 방향을 잘못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각종 주요 불사 및 종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대중의 공론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임회의 주요 종책결의사항을 무시하는 등 졸속하고도 파행적인 종무행정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성철 큰스님 사리탑 조성이다. 사리탑 건립부지 사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임회의 결의(1995년 3월, 총부지 108평 이내로 할 것)를 무시하고 주지가 일방적으로 1,000평을 사용하겠다고 문화재현상변경신청서를 관계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확인 결과 종무소 주지 직인사용부에도 명기되지 않았음)

현재 진행중인 성철 큰스님 대형 사리탑 공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기하학적으로 이루어진 사리탑의 조형 형태가 현대적 문화재를 만들겠다는 의욕이 지나쳐서 천년고찰의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

둘째, 1,000평 이상의 부지를 차지하는 대형 사리탑은 불교사에도 유례가 없는 지나친 호화사리탑으로서 불교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청빈한 가풍을 보이셨던 성철 큰스님의 뜻에도 어긋난다.

셋째, 현재 진행중인 부지 일대는 사중의 비림구역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일대는 해인사의 많은 원로대덕과 재적승들의 부도가 안치되어야 하는데 특정스님의 사리탑이 지나치게 대형화된다면 형평성에 위배된다.

넷째, 현행 국가법령에서도 개인묘지를 20평 이내로 하고 있으며, 현재 9평으로 줄이는 것을 입법예고할 정도로 분묘축소에 대한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 무소유를 내세우는 불교계에서 대형호화 사리탑을 조성하는 일은 세인의 지탄이 될 것이다.

다섯째, 대대적인 모금을 통해서 수십억원대의 삼보정재를 호화 사리탑 조성에 사용한다면 큰스님께서 평소 시주은혜를 지는 것을 경계한 뜻에 위배되며, 지나친 사업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사리탑 규모를 대형화하는 과정이 사중 임회 결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리탑 조성 공사에 이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금년(1997년) 년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 해인초등학교 부지에 박물관, 만불전(국제회의장),수련원, 연구소 등과 다실, 매점 등의 부대 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이다. 이는 현 사중 운영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해인사 창건 1200주년(서기 2002년)을 맞아 추진하는 소위 제2의 해인사 건립이다. 약 2만평 가까운 부지에 신앙, 포교, 문화, 수익 공간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불사는 박물관 건립비용 약 8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320억원을 상회하는 대작불사로서 10년에 걸쳐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작불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불사의 타당성 및 제반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밀실행정으로 졸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1997년 1월은 현 주지스님이 취임한 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 이 사업의 졸속성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 정도의 사업 규모라면 반드시 대중의 공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요, 또한 임회나 각종 회의체, 전문가들에게 그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케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인총림은 정화불사와 총림 개설 이후 수행 및 교육도량으로서 사부대중과 국민대중의 존경과 귀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해인사 선원에는 구참납자의 발길이 끊기고, 해인총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한국불교의 선풍이 침체하기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한국불교의 도제양성의 최고 교육기관인 해인강원은 전통교육 고수라는 미명하에 그 교육내용, 교수진 문제, 시설 환경, 운영과 관리감독 시스템, 예산문제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과거 70년대보다 낙후되어 세기가 전환되는 문명의 격변기에 속불혜명 건법교화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

율원 또한 사중의 의도적 방치로 낙후되어 있고, 경학과 불교사상의 전문적 연구를 위한 연구시스템 도입도 시급한 현실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수행과 교육의 문제가 공동화되어 피폐한 현실인데 총림의 행정담당자가 수행과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저버리고 가람불사를 빙자한 개발수익사업에 몰두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불사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10년간 종무소 소임자들은 300억원대의 예산수급 이외에는 어떤 관심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중 예산은 긴축하여 이 불사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물론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불사와 종책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들릴 뿐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박물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규모상 공개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소규모 건설회사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하여 진행하는 점으로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사 내용 또한 부실이 우려되는 점이다.

넷째, 공사발주를 따낸 지방의 건설회사 사장이 공사의 정부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지방의 정부여당의 모 국회의원의 수하 사람이라는 점이 종교와 정치가 재정을 빌미로 유착하고 있다는 힘의를 받는다는 점이다.

다섯째, 박물관 공사를 포함한 이 초등학교 불사의 기획입안, 추진과정 등 일체가 특정한 한 스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의 설계, 예산수급 및 집행, 공사진행과정의 점검 및 수정, 감리 및 감독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중의 중진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법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 재정에 름의를 일으켜 사중의 정제를받은 스님에게 일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업자를 끌어들여 천년성지 해인사 경내지 산중에 약 3만기의 유골을 안치할 납골당을 건립하겠다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영찰이 위치하는 산중에는 묘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래의 관행인데, 하물며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성지에 대규모 납골당을 건립한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다. 또, 600억원대의 수익사업일을 내세우는 사중 행정책임자는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종무회의의 진지한 검토도 없이 밀실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회의 공식 결의가 있기도 전에 지난 7월부터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1997년 8월 임회에서도 여러 원로 중진스님들의 우려와 지적을 무시하고 업무추진상 보안을 이유로 사업계획서와 계약조건을 검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다수의 종무소 국장스님들도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 대중스님들이 이 엄청난 사안에 대해 그 추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욱 엄청난 사실은 외부업자를 끌어들여 추진하는 이 납골당 건립사업에 대해 임회의 결의와 종단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와 계약을 맺기도 전에 주지스님이 금품을 수수하여 현재 납골당 관련 토목공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종헌 종법상의 불법 종무집행일 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법령에도 저촉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현 종무소 책임자의 무지와 경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 사중의 행정 책임자는 종무운영의 방향착오와 엄청난 행정적 과실로 인해 해인총림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해인총림을 수행과 교육도량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해인사 재적승과 해인승가대학(강원) 동문을 중심으로 결성된 우리 상림회는 해인총림을 아끼는 사부대중의 염원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천명한다.

■ 우리의 주장 ■

1. 우리 상림회는 해인총림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수행과 교육문제에 집중시켜 종단 최고의 인재양성 도량으로 정립하는 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 해인사의 현 종무책임자는 도제양성을 소홀히 한 채 추진하는 대형건축불사와 각종 개발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형질 변경한 자연환경을 원상복구하라.
3. 종무책임자는 성철큰스님 사리탑 조성공사 과정에서 임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임의로 1,000평 이상의 부지를 사용하도록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 중지와 부지를 원상회복할 것이며, 임회의 결의와 대중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해당 부지 일대를 원로대덕과 평대중의 부도를 법도에 맞게 안치할 비림을 조성하라.
4. 구 초등학교 불사(박물관, 만불전, 수련원, 연구소 등)를 전면 중지하고, 그 구체적 사업계획과 공사 관련 인허가 사항, 제정 및 각종 계약 사항을 총림 대중에게 공개하라.
5. 해인사 산중에 납골당을 건립하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중지할 것이며, 중단 승인과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한 자료의 내역을 공개하라.
6. 주지 이하 종무 소임자는 해인사를 불법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는 이상의 모든 시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7. 방장스님께서는 현재의 해인사 문제를 수습하여 바로 잡고, 해인사가 수행과 교육중심 도량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산중의 중진스님, 재적승, 해인동문들로 구성된 '해인총림 비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41(1997)년 10월 7일

상림회 공동의장 원학, 향적, 여연